

중소기업 ICT표준기술 자문 현황과 2020년 추진 방향

*심성구, **조은주, ***김주하, ****정국식, *****이혜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sg@tta.or.kr jej@tta.or.kr, jhkim@tta.or.kr jgsigi@tta.or.kr, katehlee@tta.or.kr

Status and 2020 Plan of ICT standard consultation for SME

Seonggu Shim, Eunju Cho, Jooha Kim, Guksik Jeong, Haejin Lee

TTA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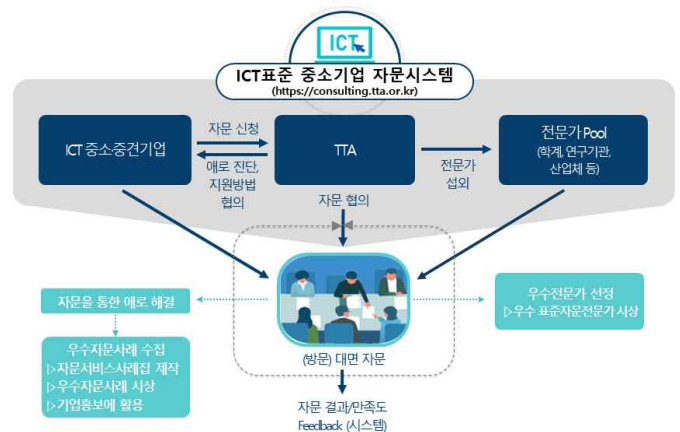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ICT표준의 활용 확대를 위해 ICT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표준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지역 거점형 표준 행사, 기술 세미나, 교육 등 표준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보급 서비스를 통해 ICT 표준 활용도 및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맞춤형 표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화 참여 증진, 편익 확대 및 ICT 표준 개발 또는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구현 등 강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TA의 중소기업 ICT표준기술 자문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 표준 자문 지원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서론

기술 간 융·복합에서 ICT 기술이 타 산업에서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제품·서비스 연구 및 개발, 타 제품과의 호환성 확보, 제품·서비스의 신뢰도 및 이미지 향상, 국제시장 진출 등에 ICT 표준의 활용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시장 기반 적시 표준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이고, 선제적 표준화 대응 활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TTA에서는 이와 같은 ICT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 표준 기술의 최신동향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지식 공유를 통해 ICT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표준 보급·확대를 위하여 민간 및 유관산업에 찾아가는 설명회, 세미나, 교육, 특강 등 표준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보급 서비스를 통해 ICT 표준 활용도 및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표준화 참여 활동의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요기반의 맞춤형 표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 증진, 편익 확대 및 ICT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구현 등 강소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림 1) 본 고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 적용(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TTA의 ICT표준기술 자문이력과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컨설팅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많은 중소기업들은 표준기술 정보를 습득하거나 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예산, 시간 그리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표준 기반이 취약하다.



(그림 1) ICT표준 중소기업 자문 시스템 체계도

복잡하고 난해한 ICT표준(ex. 5G, oneM2M 규격 등)은 업체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자사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TT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CT표준기술, 표준화 동향, 표준화 활동 방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산학연의 표준기술 전문가 pool을 구성해 제공했다. 그러나 기업이 적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선정해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나, 단순 정보 제공형 자문 형태로 1~2회 진행되다 보니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업의 기술력과 표준화 역량에 따라 표준화 인식 제고 교육부터 애로사항 분석 및 해결, 표준적용을 통한 제품 상용화 단계까지 지원 가능한 맞춤형 자문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2015년을 기점으로 '수

요자(기업)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제품·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변화를 주었다. 표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품의 표준 적합성을 확인할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先)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기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표준전문가를 선정하여 맞춤형 장기집중 자문을 제공했다. 2016년에는 특허청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공동 지원하는 '유관기관(KISTA) 협력형 표준특허 자문'을 추가 확대했다. 이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두는 대표적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제 표준화 하고 이와 동시에 표준특허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지원해준다. 한편, 표준기술의 이해, 기술의 표준화, 표준화 활동 방법 등 필요사항을 언제라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단기수시 자문을 열어 두었다.



(그림 2)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자문 개요도

또한, 기업의 상시 애로자문 신청 등 전자적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ICT표준기술자문시스템(consulting.tta.or.kr)을 구축하고, 약 420명의 자문전문가들을 자문 기술분야 별로 확보했다.

자문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표준을 적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2~3년차 장기적 자문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업을 위주로 시제품 제작(또는 제품 개발), 정부사업 수주, 표준 개발, 상용화(사업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그림 3)



(그림 3) 2019년 표준자문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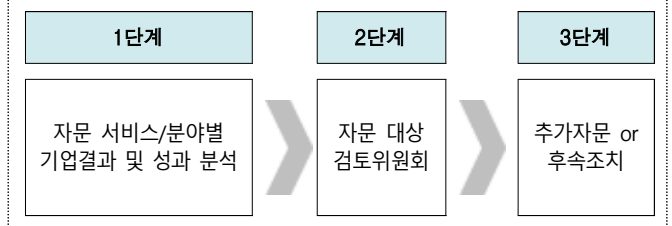
그리고, 다양한 자문사례를 발굴해 기업의 표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문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ICT 표준을 기반으로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구현한 기업들의 사례발표회를 개최해 기업의 성공사례와 개발한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간지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자문서비스 소개와 함께 수혜기업 및 제품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매년 연말 우수한 자문사례 기업들과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을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자문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언론기사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3. 프로세스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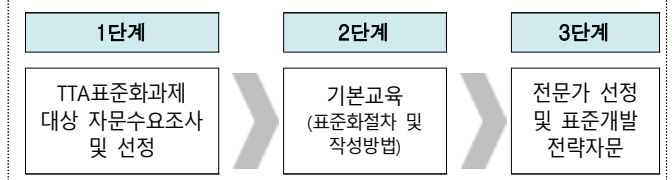
본 자문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자문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Pool을 수시 현행화 추진, 자문진행 매뉴얼 및 프로세스 보완, 홍보·마케팅 강화, 자문시스템 고도화(* 양방향 On-line 자문시스템 구축(가칭 「ICT표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자문 사후관리'의 경우, 자문 종료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해당 표준의 개정/대체 표준 여부에 따른 추가 자문 수행,

< 자문 사후관리 체계 (안) >



자문 전문가 Pool의 이력 및 세분화, 자문 체크리스트 구축을 통한 체계적 자문 추진, 마지막으로, '표준개발자문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표준작성을 어려워하는 기술전문가들의 표준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TTA표준과제 자문활용체계 구축(안) >



4. 결 론

표준은 세계와 소통하는 약속이다. ICT표준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의 가치를 알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TTA는 자문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표준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TTA는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사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표준적인 측면의 R&D를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TTA는 표준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흔하게 활동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표준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전덕중 외3, "국내외 중소기업(SME) 표준화 활동지원 현황 및 방향", 하계 통신학회, 2016. 6.
- [2] 조은주 외3, 중소기업 ICT표준기술 자문 현황과 방향

본 논문은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0-00062, ICT 표준 확산 및 진흥 연구)